

아침세평

김 홍 석

G-Kunst 연구소장



문화예술활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운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술은 사람들의 감성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정보나 데이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은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실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직을 마치고 가족과 동해안 블루로드 길을 2시간여 트레킹하며 자연경관과 바닷가 마을의 풍경에 흠뻑 젖으며 가족들간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집에 돌아온 후 3일이 지나 그 아름다운 해변가 마을을 회미가 삼켰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금도 동해바다와 노골리의 한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망연자실 하루 아침에 삶터를 잃은 그 분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며 공동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

픔을 함께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완전한 복원되기까지는 생태계에 따라서 100여년이 걸려야한다고 하니 공존할 자연에 죄를 짓는 마음이다.

문화예술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방법에는 예술가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홍보하거나, 친환경적으로 행사나 공연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술가들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피하는 등 지속 가능한 창작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룬 예술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을 촉구하기도 한다.

세계적 사례로는 이마지닝 프로젝트와 그린뮤직 페스티벌, 디지털 아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마지닝’ 프로젝트는 여러 도시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다양한 예술 매체로 표현하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린뮤직’ 페스티벌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운영되며, 음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다.

또 ‘디지털아트’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관객들에게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아웃도어 소매 체인 REI는 2015년, 블랙프라이데이에 모든 매장을 닫았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지나친 소비보다, 자연을 즐기라”였다. 이에 140만 명이 함께 한다고 선언했고, 170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뒤따랐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과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사례임을 보여준다.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업사이클 뮤직을 창작하고 재생 악기로 환경을 지키고 공존을 실천하는 크리에이티브아트(대표 이승규)가 8월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해 세계인에게 환경문제를 호소한다하니 광주의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가들은 기후위기를 다루는 예술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예술 작품은 감동과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예술 축제나 전시회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적 시도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전이다.

예술가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예술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강력하게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기고

유 영 민

전남도 이민정책과장



지방의 인구감소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외국인력 유치와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지역이민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와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들이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비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은 정주형 가족이민을 촉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F-2-R, F-4-R, E-7-4-R)는 인구감소지역에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경우 허가조건이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 취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동반이 가능해 배우자는 취업을 하고, 자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가족단위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전남은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386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의 쿼터를 운영한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는 쿼터제한이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과 실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모두 국내에서 취업과 가족동반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취재수첩

‘노쇼’ 사기… 신용사회 발길 멀어

윤 용 성

사회교육부 기자



‘악숙’이란 다른 사람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혹은 그렇게 정한 내용을 뜻하는 단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 그 중심에는 악숙이라는 조건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주문을 하고 잠적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노쇼’(NO SHOW)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부대 명의의 위조 확인서를 보내주고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며 전투식량·식자재 대리 구매를 요청한 후 업주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잠적하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전남경찰청이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7건(광주 28건·전남 9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건(광주 1건·전남 1건), 2월 4건(광주 4건·전남 0건), 3월 6건(광주 2건·전남 4건), 4

월 25건(광주 21건·전남 4건)으로 이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에도 업체별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달한다. 불경기 속 대량 주문을 하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이자 영업에 타격을 입히고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하기는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우리 사회의 신뢰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쁜 의도의 고객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결국은 다수의 잠재적인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쇼’에 대처하는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법규와 단속에 앞서 ‘악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OPINION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사설

亞·太 최대규모 ‘전남 해상풍력’ 속도

신안군 해역에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기 때문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 민간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오는 2033년까지 민간 자본 20조원이 투입돼 총 3.2GW 규모, 원전 3기 용량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다.

무엇보다 이번 집적화 단지 지정으로 공동 접속설비 구축 등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즉, 집적화단지에는 발전소 여러 곳의 전력을 하나의 지점에서 모아 육지로 송전할 수 있는 공동 접속설비 설치가 가능해 이를 활용하면 발전소마다 개별 송전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집적화 단지가 조성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공급인증서(REC)를 연간 2450억원 확보할 수 있게 돼 주민 이익공유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 노력이 크다.

김 지사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 면담,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고 전남도는 2021년부터 기존 사업자들의 해역 이용 실태와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는 등 발전 효율성을 높였다. 또 주민·여민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송전선로 예정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사전에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실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발전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부 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조성 운영에 필요한 연안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목표선량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정체 상태에 있던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이 조성까지 탄탄대로를 걷길 기대한다.

순천만습지, 지속가능 생태관광 제시

순천만습지가 우리나라 생태관광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생태관광지역 방문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28개 생태관광지역 중 ‘향후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가 전국 생태관광지 방문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경관,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색, 재방문 의향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순천만습지는 자연환경 보존 우수성,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문 희망 순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7.6%가 선택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생태 관광 대표지로 유명한 제주 저지곶자왈(15.1%), 철원 DMZ(11.1%) 등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월 선정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함께 포함됐다.

올해 7회째인 ‘한국관광 100선’은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대표적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순천만습지는 2013년 첫 발표 이후 지금까지 7번 모두 선정됐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오랜 시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순천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한 만(조변의 해안선과 비교해 바닷물이 육지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수역)으로 순천시와 고흥군, 여수시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절반의 서식지이며, 순천이 가진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여기에는 순천시의 노력이 컸다. 2009년 세계 최초로 도심내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고, 순천만 인근의 방치된 사도장과 동천 둔치 등 6개소 30만㎡를 내륙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조류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후 다양한 생태복원사업, 흑두루미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꾸준히 선보였다.

순천만 습지가 단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넘어서서 이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정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370-7060 370-7222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